

가정 예배 모범

- 2022_02_06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 발 앞에 나 앞드려(One Way)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요 11장 17~ 27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언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까?(24절)

▶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의 상식을 뛰어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25절)

▶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소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한 예수님의 발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